

News

은행, 신용대출 실수요자에 연소득 0.5배 이내 특별한도 지원

뉴시스

은행연합회,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 마련... 지원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적용기준은 은행별 상이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 초과 대출한도 운용 가능... 특별한도 연소득 0.5배, 최대 1억원 이내

은행권, 특은채·회사채 매입... 'LCR 사수·캐리 수익'

연합인포맥스

은행권, LCR 사수를 위해 채권 사들이는 모습... 특히 연말 들어 캐리수익을 추구할 특은행채와 회사채 위주로 모으는 모습
금융당국의 85%로의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은행들은 최대한 LCR비율 90% 내외로 맞추려는 모습...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연말 캐리 위주 수익 담을 목적

씨티에 뉴욕멜론은행도... 외국 금융사 한국 탈출 잇따른다

중앙일보

외국계 금융사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뉴욕멜론은행도 한국에서 사업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
금융위원회,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수익성 악화와 규제체계 불확실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내년 대출영업 더 힘들어진다... 규제 피한 중금리대출 '주목'

아시아타임즈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4~5% 제한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 시중은행들도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고객 확보 경쟁
금융당국, 중금리대출 공급을 내년 35조원까지 확대 방침... 예대마진 감소 최소화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이 중요해져... 중저신용자 중 우량고객 선별을 통한 리스크 감소 필요

온라인보험 수익 '글쎄'... 소액 단기보험은 성장세

디지털타임스

보험산업 온라인채널,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소액·단기보험 중심 판매가 이뤄져 수익성은 미미... 간단한 구조의 보장성, 저축성보험에서 가입 비중 높아...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저축·저축·어린이·정기·상해 순... 손해보험의 경우, 여행자보험이 가장 높아... 다만 온라인채널 효율성과 경쟁력은 있어 시장 성장과 관심은 지속될 것

실손보험 만성적자에 보험료 인상 폭탄? ...줄다리기 예고

더팩트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20% 이상 인상 예고... 13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상품 소개 등을 담은 안내문 발송 예정
올 3분기까지 손보사 실손보험 손실액 1조 9,696억원 잠정 집계... 비급여 의료비와 일부 고객들의 의료쇼핑이 원인으로 지적... 다만 최종 인상률은 당국 협의 후 이달 중순 결정

증권가 퇴직연금 쟁탈전 후끈

매일일보

디폴트 옵션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서비스 강화 노력 주목... 증권사 IRP 계좌로 약 4,841억원 순유입
수수료 낮추고 상품 라인업 다양화 등 퇴직연금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모시기 한창... 미래에셋증권이 높은 수익률로 강한 존재감

'빚투 금리' 인상 본격화...동학개미, '탈코스피' 가속화되나

아시아투데이

증권사들, 빚투 금리 잇달아 인상... 시장금리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 감당 어려워...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리스크 확대 및 동학개미 이탈 계기 가능성
NH투자증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0.4%p 인상 결정... 그간 이자율 인상을 늦췄으나 CD나 CP 금리 상승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